

민주당, 여당 잼버리 '전정부 책임'에 "세계선 남탓안통해"

이재명 "문제 발생하니 남탓만...전정부 탓으로 해결 안돼" "성공적이면 전정부 덕분이라 하겠나...거의 병적인 수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대회 부실 책임을 전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세계에선 남 탓이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 격정거리 대회가 된 것 같다"며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흑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질적, 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폭염이 예상됐고 많은 분들 지적했던 것이다.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 탓을 하고 있다"며 "각국 대표단 조기 퇴원이 잇따르고 급기가 성범죄 의혹도 생기는데 사건

축소만 급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계·하계 올림픽, 월드컵을 성공 개최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후진적인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됐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잼버리 대원들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행사다.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격이 더 이상 추락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 대회 운영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조속하게 구성하고 남은 1주일이라도 대회를 잘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도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잼버리 사태는 천재지변에 의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예고된 사고"라며 "폭염과 해충, 각종 시설 미비 등 1년 전부터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지만 현 정부 이를 외면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다. 그러면서 전정부 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잼버리가 성공적이었다면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덕분이라고 했겠다. 잘 되면 내 공, 못 되면 남 탓. 좀 그만해라"라며 "뭣하러 정권 맡았나. 정권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가, 아니면 겸손하기라도 해라. 아니면 그만 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이제 세계 청소년까지 아픔에 빠트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의 지탄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걸 모른 채 남 탓만 계속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윤석열 정부, 남 탓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 남 탓, 전정부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만해라"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잼버리 대회 준비부족 실패로 파행, 변칙 운용 와중에도 정부여당은 또 전정권 탓을 했다.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며 "정권을 이양받고 1년 3개월이 되고도 전정권 탓할 거면 뭣하러 집권하겠다고 나섰나"라고 반문했다.

변용일기자

전남도의회, 몽골지방의회와 첫 우호교류협약 체결



전라남도의회는 지난달 25일, 몽골 돈드고비지방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 간 농업 기술 협력과 상호 교류 등을 위한 골자도 하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17일 전라남도의회를 방문한 몽골 돈드고비의회 에르덴 의장의 요청에 의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과 신민호 기획행정위원,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이재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양 의회 간 상호협력에 다짐하고 전라남도도와 돈드고비 지방정부 간 교류

사업 확대 및 농업분야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에르덴 의장은 몽골 주민의 계절근로자 입국 확대를 통해 농민에게 전남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돈드고비 지역의 우수 학생을 전남도립대 장학생으로 선발해 졸업 후 전남도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태균 부의장은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국제농업박람회에 몽골 식품기업 바이어 초청을 통해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농업기술원을 통해 선진 농

돈드고비 의회 초청

업기술을 돈드고비에 전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균 부의장은 "돈드고비의회와 전라남도 의회는 양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상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몽골 내 한류 확대에 따라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까지 교류를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에르덴 의장은 "양 지역 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로가 발전을 도모하고 번치 않는 우정을 쌓아 나갔으면 한다"면서 양 의회 간 긴밀한 공조를 요청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관계자는 "10월에 개최되는 제375회 임시회 때 몽골 돈드고비의회 에르덴 의장을 초청하여 분회회장 연설과 국제농업박람회 및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를 방문하는 등 몽골 내 전라남도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문제 거론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처가 땅을 사전에 측정했다는 내용의 국토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건 대체..."라고 적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종점 근처에 대통령 처가가 보유한 땅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 이 대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잼버리에 참가한 한국스카우트 대원이 성범죄 의심 사건 부실 대응을 이유로 조기 퇴소한 것에 대해 "거대한 '반대한민국 카르텔'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아마도 이분은 이런 게 2차 가해인 줄도 모르실 겁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3박 4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늘 복귀한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